

“현직 인사담당이 모의면접, 피드백 해줘… IT 채용문 활짝”

Q 르포 | 2026 금융권 채용박람회 가보니

#.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강석민(가명·25) 씨는 강의가 없는 날 금융권 채용박람회를 찾았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졌고, 청년 세대의 구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금융권의 일자리 정보도 얻고 싶어서다. 그는 “개최 사실을 늦게 알아 모의 면접은 신청하지 못했지만,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기업들의 인제상도 알게됐다”라며 “내년부터는 금융권 채용박람회가 연 2회 개최되는 만큼, 내년에는 모의 면접에도 참여해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9일 열린 ‘2026년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몰려 들었다. 올해 금융권 채용박람회에는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국내외 8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작년보다 2곳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10화제를 맞은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금융권에서도 정답을 찾는 사람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모의 면접’ 성황

구직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쪽은 ‘모의 면접’이었다. 신청자를 사전에 접수한 모의 면접은 현직 인사담당자들이 실제 채용 과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해준다. 고득점을 받은 구직자에게는 기업 지원 시 서류전형 등을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는 모의면접이 외국계은행과 증권사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모의면접에 참여했다.

시중은행 모의 면접을 대기하던 한 참가객은 “취업문이 좁은 상황에서 서류전형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건 큰 혜택이다”라며 “작년에도 모의면접에 참여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웠는데, 지난 1년 동안 더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고 했다.

박람회장 한 칸에는 채용박람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청년들을 위한 화상 모의면접장도 마련됐다. 화상면접에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금융공공기관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 금융권 ‘인제상’ 변화

이날 박람회에서 금융권의 인제상 변화가 눈에 띄었다. 기존의 인제상이 단정한 외모와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인 소통능력과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능력까지 영역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 증권·카드사 등 82곳 참여 모의면접 고득점자에 서류 면제 ‘소통·디지털·AI 능력’ 인제상 확대 “IT관련 기업들 경력직 위주 채용 금융권, 고용안정·처우도 좋아”

확대됐다. 디지털금융의 보급으로 대면 영업 비중이 줄고 기술적 영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인제상만으로는 최적의 인재를 탐색하기 어려워져서다.

금융권의 인제상 변화 속에 IT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들도 박람회장을 찾았다. 최근 AI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IT 업계의 취업문은 좁아진 반면, 금융권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좋은 처우를 앞세워



참관객들이 한 시중은행이 진행하는 모의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IT 인재 영입에 힘쓰고 있어서다.

박람회장을 찾은 한 구직자는 “IT 관련 기업들은 최근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신규 채용 규모는 줄이고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IT 관련 채용 비중을 늘리고 있다”면서 “금융권은 높은 고용 안정성과 좋은 처우로도 알려진 만큼, 금융권의 IT 인재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박람회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 금융채용박람회, 내년부터 연 2회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가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획득하고 기회를 얻는 주요한 창구로 자리잡는 가운데, 박람회 개최를 후원하는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채용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도입

으로 직무 요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력직 선호도 심화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권 취업 문턱은 높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AI의 도입은 보안, 심층고객상담 등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내년부터 채용박람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개최하고 두 번 중 한 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하겠다”면서 “금융권에서도 AI 시대에 걸맞는 청년 인재 채용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지역 인재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asj123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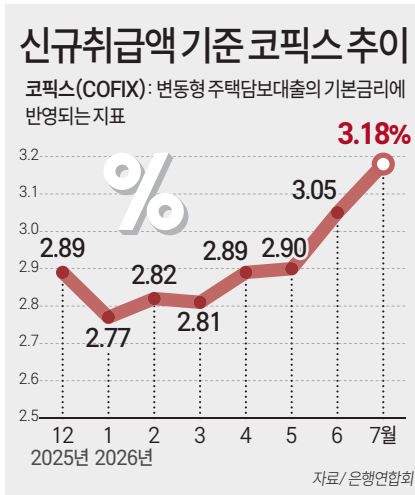
metro

이번주 대출총량 30조 더 푼다… 수요자 체감은 ‘글썄’

코픽스·은행채 등 가파르게 상승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4.45% 달해 접수 조기 마감에 은행 ‘오픈런’도 고신용자 중심 대출 등 체감 어려워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발품을 파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잔금·이주비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총량 목표치를 2배로 늘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 문턱을 넘더라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에 따르면 6월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금리는 평균 4.45%로 집계된다. 지난해 평균 4.02%와 비교하면 0.



43%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본금리에 반영되는 지표인 코픽스(COFIX) 역시 6달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18%로 일년 전(2.51%)과 비교해 0.67%p 올랐다. 올해 4월부터 매달 올라 2024년 12월

(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연4.43%로, 지난해 같은 날(2.84%)보다 1.58%p 상승했다. 1년 사이 시장금리가 크게 뛰면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여력마저 줄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면서 대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인

터넷전문은행에서는 하루 대출 한도가 새로 배정되는 새벽 시간대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보다 늘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량 한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곧바로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와 연체 위험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우수한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은 다소 넓어지더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캐피탈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4명 ‘고금리’

아이엠·오케이·메리츠 등 주요 13곳 금리 16~20% 신규대출 비중 43%

캐피탈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4명이 16%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캐피탈에서는 개인신용대출 차주 대부분이 연 16%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사에 이어 캐피탈까지 고금리 풍선 효과가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요 캐피탈사 13곳(아이엠·오케이·한국·한국투자·BNK·KB·롯데·메리츠·우리금융·하나·현대·JB우리·NH농협)에서 16~20%의 신용대출 신규 이용자 비중은 평균 43.42%로 집계됐다. 반면, 연 8~12% 금리 구간 대출 이용자 비중은 29.91%다. 8% 미만은 0.89%에 머물렀다.

캐피탈사 13곳 중 5곳은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아이엠캐피탈은 신규 차주의 53.64%가, 한국투자캐피탈은 58.52%가 16% 이상 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 메리츠캐피탈과 JB우리캐피탈도 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 비중이 높았다. 두 캐피탈사의 16% 이상 금리 이용 고객 비중은 각각 97.29%, 74.73%다.

신규 고객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고금리 대출 상품을 받은 곳도 있다. 오케이캐피탈 연 16~20% 신용대출 이용 고객 비중은 100%다. 13개 캐피탈사 중 유일하다.

오케이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 상품 27가지 모두가 고위험 대상자를 한 상품이라서 금리가 높게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B국민인증서 이용고객 1800만명 돌파

성인 3명 중 1명 이상 사용하는 셈

KB국민은행은 대표 사설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가 누적 이용 고객 180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인증서는 2021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용 기반을 확대해 왔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 기준 3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다.

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

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제공하며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주택청약, 연금조회 등 주요 공공서비스와 소액·엔터테인먼트·의료 등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코인원, 실명계정 계약 연장

카카오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코인원에서 원화를 입출금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양사는 계약연장을 위한 내부 절차와 계약서 날인을 완료했으며, 코인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전 신고 절차도 마쳤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AML) 체계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왔다. 업계 최초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정 협의체와 FIU 주관 협의체에도 참여하며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코인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